

휴거의 진실 (1)

신학박사 조 덕운

사도행전 1: 7-12 [흠정역]

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10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11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12 그 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1. 예수님의 승천 휴거

신약 성서는 마가복음 16 장, 누가복음 24 장, 그리고 위에 소개한 사도행전 1 장 등 세군데에서 주 예수님의 승천 휴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승천 휴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11 절에서 천사들이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의 승천 모습이 앞으로 임박한 휴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의 승천 모습이야말로 참된 성도들의 휴거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승천 휴거 이외에도 에녹의 휴거와 엘리야의 승천 휴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부를 통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세가지의 휴거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발생할 휴거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먼저 주 예수님의 승천 휴거 사건에 관하여 다음 몇가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가. 승천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심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뿐 아니라 승천하실 일도 미리 아셨습니다. [요한 13:1, 요한 17:11, 요한 17:13]

[요한복음 17:11, 13]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록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3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배반 당하기 전에 미리 자신이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심을 미리 말씀하셨고 [마태 26:32], 이 갈릴리 계획을 부활 후에 천사들을 통하여 재차 말씀하셨고 [마태 18:7], 주님 역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 28:10]. 사도행전 1 장은 주님께서 부활 후에 40 여일간 제자들에게 교육하는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의 영적 시력과 신앙을 굳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4] 그분께서 수난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4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로 와서 본문 12 절의 기록과 같이 ‘올리벳 산’ 즉 감람산이라고 일컫는 동산에서 마지막 회동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온 세계에 복음 전도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서 들리워서 하늘로 올려져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남자 모습의 천사 두분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 휴거하신 모습과 같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수차 자신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순서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감이 오지 않아서 믿지 않았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 휴거 사건은 승천하실 주님 본인이 아시고 제자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셨으며 의도적으로 이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휴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짧은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님

본문의 9 절의 기록을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님의 휴거가 ‘눈 깜박할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그들이 보는 동안에 들려 올라가셨고 구름 사이로 주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주목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감람산으로 여행하는 일이 모두 이 승천 휴거 사건을 목적으로 했던 행로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며칠에 걸쳐서 도보로 한 여행이었고 그 동안에도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승천에 관해 이야기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휴거 전에 여행을 하는 기록은 예수님의 경우 뿐 아니라 다음에 살펴보게 될 에녹과 엘리야의 휴거 사건에서도 비슷한 여행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있을 휴거 역시 준비 과정과 소개 과정이 전혀 없이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 증인들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 휴거 사건은 감람산에 함께 모였던 그분의 제자들이 모두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건으로 몇 주 후에 사도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여 자신들이 이 사건의 증인됨을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2-33]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에 증인이로다. 33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이하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승천 휴거하신 일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신’ 사건으로 말하였습니다. 즉, 지상에 계셨던 분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리워 구름속으로 사라지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행하신 기적이었음을 말합니다. 앞으로 참된 성도들이 경험할 휴거 역시 우리의 몸이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초자연적으로 공중으로 들려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늘 왕국으로 갈 것입니다.

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모습

이미 알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을 때에, 천사들로부터 “*너희가 그 분이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11 절]”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휴거 때에 구름속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을 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확하기 위하여 구름속에 임하시고, 그들을 불러 주님 계신 구름속으로 채어 올리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즉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미리 보고 우리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마. 옷을 입고 가신 모습

Tim Lahaye 목사가 쓰고 영화로 히트를 친 ‘Left Behind’에 보면 휴거되는 사람들은 모두 옷을 남겨 놓고 벗은 몸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휴거의 광경을 본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체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천사들의 가르침대로 주님께서 영광된 몸을 입으시고 변화된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사람들을 결코 나체로 불러 모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에서 물론 휴거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스런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이므로 지상에서 입던 옷을 모두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사건 묘사를 보면 그러한 유추에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올라가셨을 때에 그간 입고 계셨던 옷을 남기고 가셨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여정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이제 주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모두 성취하시고 이제 영광된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게 되신 영광의 이벤트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런 사건을 소수의 제자들만 참석하여 증언한 매우 소박하고 심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분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있을 휴거의 모습을 알려주었지만, 주님께서 이때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하늘 왕국의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지상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귀환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하늘의 큰 영광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주님의 초대에 의하여 하늘로 휴거되어 하늘 왕국의 모습, 특히 영광을 받게 되신 어린양 주 예수님을 그 영광 가운데 보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9-14]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10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11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12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14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대받고, 오해받고, 경멸과 무시와 미움을 받고 가장 큰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왕국에서는 “왕좌에 앉으신 어린양”으로 하늘의 모든 식구들로부터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휴거는 지상의 험한 인생으로부터 하늘 나라의 큰 보상과 영광으로 옮겨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올 성도들의 휴거 사건 역시 이 땅의 힘든 여정에서 하늘 왕국의 주님 앞으로 가는 매우 훌륭한 여행이 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2. 엘리야의 승천 휴거

엘리야는 기원전 9 세기에 북 이스라엘 왕국에서 아합왕 시절에 사역하였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갈멜산 정상에서 850 명의 바알 및 아세라 제사장들과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입증함으로써 이 거짓 제사장들을 모두 죽인 승리를 거둔 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의 사역의 기간이 종료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는데 이는 에녹의 승천과 더불어 두번째 기록된 승천 휴거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3] {주}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하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뽀엘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뽀엘로 내려가니, 3 뽀엘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가. 미리 알려진 하나님의 계획

어떤 경로로 인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휴거하실 계획이 그의 제자인 엘리사 뿐 아니라 다른 대언자들의 생도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은 엘리야의 승천 휴거가 있기 며칠 전에 하나님 편에 선 대언자들과 추종자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었으며, 그 휴거 사건은 비밀도 아니었고 순간적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신약 교회의 휴거 사건 역시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수일 전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 다가올 엄청난 사건의 임박성을 알지만, 그들은 정확히 어느 순간에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날지는 모를 것입니다.

나. 여러 증인들

엘리야의 승천 휴거 사건은 그의 수제자인 엘리사가 그와 함께한 시간에 발생하였고 강 건너에서 50 명의 다른 대언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려서 하늘로 데려가신 휴거의 사건임을 의심 없이 보고 믿었습니다.

[열왕기하 2:6-11] 엘리야가 또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가니라. 7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의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는데 그들 둘이 요르단 옆에 섰더라. 8 엘리야가 자기의 겹옷을 취하여 둘들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가니라. 9 ¶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두 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10 그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1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 병거와 불 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으매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주 예수님의 승천 휴거 때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승천 휴거 사건은 여러 명의 제자들이 직접 보았던 사건으로 이는 비밀리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올 교회의 휴거 때에도 부르심을 받지 않은 여러 교인들과 믿지 않는 친지들과 가족들이 바라보는 상태에서 선택된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천사들의 부름을 받고 초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구름 위로 나뉘 채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엘리야의 외투와 사후 탐색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자기의 외투를 벗어 손에 쥐고 강물을 이리 저리 치고 건널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물 없는 강물 바닥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휴거 되어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외투가 손에서 떨어져 이를 엘리사가 주워 들고 그도 역시 강을 되돌아 건너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외투를 손에 쥐고 이리 저리 강물을 치면서 물 없는 강물 바닥을 건너 갔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하기를 혹시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중으로 올렸다가 어디엔가 떨어뜨렸을지 모르니 사람들을 동원하여 수색 작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엘리야 휴거 계획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온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에 반대 했지만 그들이 하도 여러번 주장 하니깐 승락했습니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50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그 일대를 철저히 수색했지만 엘리야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휴거 때에도 남은 사람들이 참된 성도들의 휴거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도저히 믿기 어렵기 때문에 수색 작업을 한다든지 하여 그들의 불신을 행동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하에 목사의 주장대로 휴거되는 성도들이 그들이 입던 옷을 벗어놓고 발가벗은 몸만 휴거된다고 하는데, 이는 엘리야의 휴거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우리는 지상에서 입던 옷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휴거되더라도 주님을 만나기전 눈 깜짝할 순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환될 때에 우리가 입은 옷 역시 하늘 나라에 적합한 옷으로 기적적으로 변환될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손에 들고 있던 외투만 남겨 놓고 평소 입던 옷을 입은 채로 하늘로 채여 올라갔습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와 50 여명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